

“금융환경 변화, 속명으로”

전북은행, '창립 52주년 기념식' 비대면 자체 행사로 개최 서한국 행장, “우리 먹거리 지키기 위해 모두의 역량 발휘할 때”



서한국 전북은행장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창립 52주년 기념 행사를 대면 행사 대신 각 부서 및 영업점에서 자체적으로 축하하는 비대면 행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한국 은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 첫 자택출신 은행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절박한 심정과 엄청난 사명감으로 한 해를 보냈다”며 “코로나19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환경 변화 등 시대 전환의 흐름을 속명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의 자리와 먹거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 핵심사업 강화를 통한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 추진과 포스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비용 효율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이 분야의 수익 창출, 은행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수익원 다변화 등을 당부했다.

이어 서은행장은 팀(we team)으로서의 조직문화 구축을 강조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고 실적 거양이라는 경이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만큼, 전북은행인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언제나 위풍당당한 자세로 행복한 직장을 만들며,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가지”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 1969년 창립 이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해 오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은행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금융으로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0일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 최선” 박병홍 농진청장 발농업 기계화 간담회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10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농업기계화를 앞당기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박 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관과 지역 농업인 등과 함께한 간담회에 영농 현장에서 체감하는 발농업 기계화에 관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농촌진흥청이 진행하고 있는 발농업 기계 연구·개발 현황과 현장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청장은 “현장 맞춤형 발농업 기계 고도화·고성능화 연구 확대,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농기계 개발, 전(全)과정 기계화 시범사업 발굴과 현장 확산을 강화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등 영농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취임한 박병홍 청장은 취임사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발농업 기계 개발 확대, 발농업 전(全)과정 기계화, 자율주행 기반의 무인 농작업

기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청장은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청장은 “겨울철 농기계 관리 소홀로 사용 연한이 단축되거나 잦은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과 점검에 특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병홍 청장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목장체험 농촌교육농장(맘맘스 신광목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관리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농촌교육농장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장으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초·중·고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농촌체험학습과 진로직업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주기적 소독,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문객 출입 관리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북은행, 무주 선천에 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9일 무주군 선천면에 위치한 솔로몬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33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지난 2005년 개소한 솔로몬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0명의 아동들에게 방과 후 학습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센터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오픈식에는 무주군 문현중 행정복지국장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이경호 무주지점장,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송희진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센터전체에 도배를 새롭게 하고 장판을 전면 교체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아동들의 수자에 맞춰 학습용 좌파 지원, 전등 및 블라인드설치 등으로 밝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북은행 무주지점은 무주군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여 향후 아동들을 위한 복지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기로 했다.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은 “아동들을 위한 헌신과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이번 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항토은행으로서 ESG경영 확대는 물론 연중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인전공사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2021 대한민국 전기인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정부포상을 받은 유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흔들려선 안돼”

전북경총,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촉구 릴레이 시위 돌입 “도민 50년 염원, 지역 물류허브로서 경제발전 위해 꼭 필요”

도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북경영자총협회(이하 전북경총)'가 환경부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전북경총은 지난 10일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민의 50년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지역의 물류허브로서 전북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은 역대 정부로부터 소외당하며, 상대적 낙후를 거듭해 온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온 도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끝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민은 정부를 믿고 새만금개발에 30년을 기다렸고, 공항 건립은 반세기를 기다렸다”며 “그 동안 200만을 훌쩍 넘어 전북의 인구는 심리적 지지선인 18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최근 3년 동안에는 매년 평균 2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 이만 일해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 도내 14개 시·군 중 11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 낙후와 소외를 겪으면서 발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며 “체대로 된 기반 시설이 없으니 투자와 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돈과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악순환을 겪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01년 환경·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매립면허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매립면허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2010년에 방조제 공사가 준공됐다”고 말했다.

전북경총은 또, “지난 2006년 대법원 판결로 환경문제는 법률적으로 일단락됐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다”면서 “현시점에서 다시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돼 사회적 합의를 어기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전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이며, 새만금의 필수 기반시설이다”면서 “새만금은 1991년 환경부령의 원료와 2006년 대법원 판례로 환경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다시 강조하고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협의하도록 촉구하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탄소중립 실천 수변림 조성 예정지 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탄소중립 주관을 맞아 기후변화 대응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용담댐 수변림 조성예정지를 방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서부청은 금강유역본부와 기관 간 보유자원을 활용해 용담댐 유희토지에 2023년까지 약 9.5ha 면적의 수변림을 조성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지는 수변림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장 활동, 수자원보호를 위해 K-water 금강유역본부 간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권장현 서부청장은 “수변림 조성을 통해 수질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용담호에 아름다운 경관림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신규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기 기자

저탄소 식생활·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농식품유통공사-세종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실천 로컬푸드 활성화 등 협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세종시는 지난 10일 세종시청사에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난 10일 세종시청사에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식문화 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실천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협업 ▲기후위기 인식개선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협

약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생산을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기후변화 위기 극복 新농업기술 전망

농진청, 오늘 '농업기술 혁신포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망하기 위해 13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농업기술혁신포럼'을 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따라 농촌진흥청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농업과학 기술 혁신으로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행사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의 축사와 주제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탄소중립시대, 국가기후위기 대응전략 이란 주제로 남재철 전 기상청장 의 기조 발표에 이어 ▲농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추진계획 ▲축산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추진계획 ▲농업·농촌 에너지대체전환 대응전략 ▲농식

품산업의 탄소중립 대응전략과 실천 과제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농축산분야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과 실천과제를 모색한다.

이날 행사장에는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과 현장 보급 현황 개발전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판과 성과물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박병홍 청장은 “기후변화 위기 전 지구적 위기로 떠오름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넘어 공공적인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지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탄소중립사회, '생활 속 줄기' 실천부터

국민연금공단,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범정부 캠페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범정부 탄소중립 주관을 맞이하여 지난 9일 오전 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 인근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재환경청 등 3개 이전 공공기관들과 공동으로 '줄기 지지제' 캠페인을 실시했다.

줄기는 스웨덴어의 줄다(pluck up)와 영어단어 달리기(jogging)의 합성어인 '플로깅(plugging)' 봉사활동의 우리말 신조어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한다.

이날 아침 전주 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에는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4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80여 명이 모여, 공원 곳곳에 숨어있는 쓰레기를 줍고, 산책로를 걷거나 뛰면서 자구의 건강, 나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줄

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공단은 2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및 10년 연속 온실가스 목표달성 기관에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탄소중립 모범기관으로서 공단은 평소에도 입점업체 머그컵 사용하기, 구내식당 저탄소 식단 운영 등 다양한 생활 속 실천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런 행사는 일회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